[IT Essencial] BlockChain 1

블록체인의 기초 개념과 암호화 알고리즘

- 진행: 박종철 컨설턴트
- 날짜: 2020.09.09
- 목차
 - 1. BlockChain
 - 2. Cryptography
 - 3. BlockChain Network
 - 4. Applications
 - 5. 요약 정리
 - 6. <u>추가 자료</u>

1. BlockChain

1. BlockChain 이란?

1. 블록과 체인의 합성어



- Block
 - 관리 대상 데이터, 데이터의 논리적 저장 단위
 -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저장, 이더리움 계약조건을 저장
- o Chain
 - Block 이 n 번 째 생성 될 때, n 번째 block 은 n-1 번째 block 을 보증한다.
 - Linked list 와 같은 형태로 엮였다고 하여 chain 이라 한다.
 - 보증한다의 의미: Chain 을 만들 때 Hash Function 을 사용하기 때문

2. 특징

- 1. 블록과 체은을 통해 저장 된 데이터는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에 수렴한다.
- 2. 위변조 하면 안 되는 중요한 데이터를 투명하게(탈중앙화) 저장할 수 있다.

2. Cryptography

1. 암호화의 종류



2. 단방향 암호화

평문을 암호문으로 암호화 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암호문을 평문으로 복호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암호화 방법

1. SHA256

- 어떤 길이의 값을 입력하더라도 256비트(64자리 문자열)의 고정 된 길이의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
- 결과가 같다면 입력으로 주어진 문장들이 같다는 의미

Hello SSafy!

-> BF21D9C9B5EE25E28C7EADA0F9C709FEC09016A8E0AC3F695530C1B1E205E4C0

Hello SSafy!

- -> BF21D9C9B5EE25E28C7EADA0F9C709FEC09016A8E0AC3F695530C1B1E205E4C0
- 입력값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전혀 다른 결과값이 만들어진다.

Hello SSafy!

-> 67FD612D914172387FCCEA7B87013779A732D6ECA794299596E7691C588D4E5F

- Q. 복호화가 불가능한데 암호문을 왜 사용하나요?
- A. 검증을 할 때 사용합니다. 복호화가 된다는 의미는 해킹의 위험성이 있음을 말합니다.

2. Hash Function

•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 된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하는 함수

```
      y = f(x)

      y = 2x + 1 라는 함수가 주어지면 x 값에 따라 정해진 y 값을 구할 수 있다.

      x = 1 ---> y = 3

      x = 2 ---> y = 5

      하지만, y 값을 안다고 해서 f(x) 를 구할 수 는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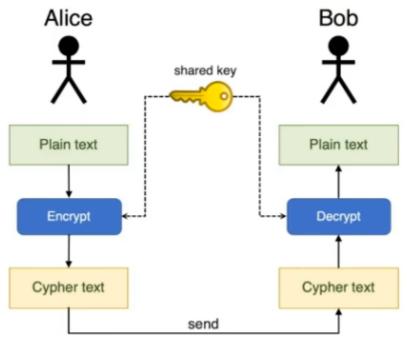
      y = 7 ---> f(x)??
```

- 해시 값으로부터 원래의 입력값과의 관계를 찾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.
- 해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값의 위조, 변조가 일어나는 경우 원래의 입력값과 매핑 된 결과값이 달라진다.

4. 양방향 암호화

암호화 된 암호문을 평문으로 복호화할 수 있는 암호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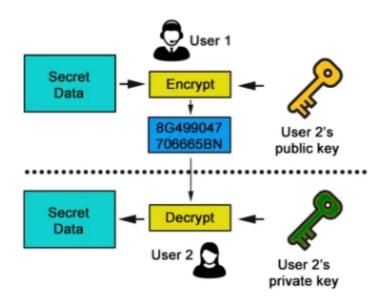
1. Symmetric Encryption (대칭키 암호화)



Symmetric cryptography

- 암호화 하는 키와 복호화 하는 키가 동일한 알고리즘
 - o AES, ARIA, SEED 알고리즘
 - o https://seed.kisa.or.kr/kisa/index.do 에 가면 무료로 사용 가능
- 취약점
 - 이 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.
 - 키 관리 서버를 따로 두거나, 주기적으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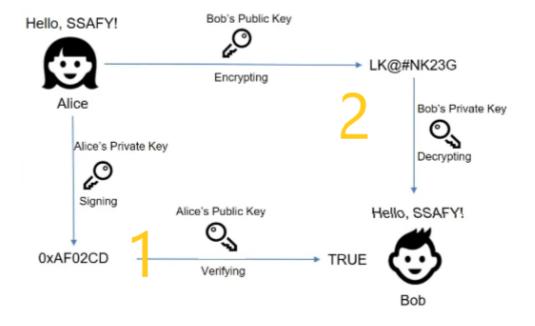
2. Asymmetric Encryption (비대칭 키 암호화, 공개키 암호화)



Asymmetric Encryption

- 암호화와 복호화를 위해 각각 별개로 한 쌍의 키를 두는 암호화
 - o 암호화 하기 위한 public key (공개 키)
 - o 복호화 하기 위한 private key (개인 키, 비밀 키)
 - 개인 키로 공개 키를 만들 수 있으나, 공개 키로 개인 키를 만들 수는 없다.즉, 복호화는 수신자 자신만 할 수 있다.
- RSA, ECC 알고리즘
- 취약점
 - o Man in the middle attack (중간자 공격)
 - o 암호화 된 내용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, 타인을 사칭하여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 기법에 취약하다.

3. Digital Signature



과정

- 1. 송신자가 메시지를 보낼 때, 원문과 원문의 핵심 값을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화 하여 보낸다.
- 2. 수신자는 송신자의 서명을 확인하고, 송신자의 공개 된 키 페어를 통해 True/False를 확인한다. True 의 경우 복호화 과정을 진행한다.
- 3. HASH 값이 나오면 원문과 HASH 값의 비교를 통해 데이터 검증을 한다. 그림에서 2번으로 표시 된 과정은 RSA 과정과 동일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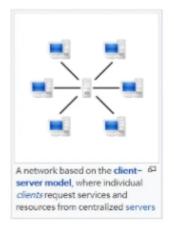
• 취약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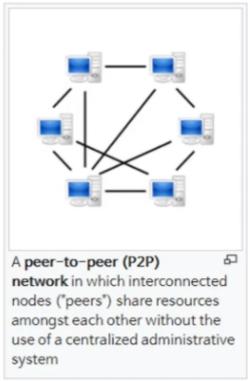
ㅇ 느리다. 프로세스가 길다.

3. BlockChain Networ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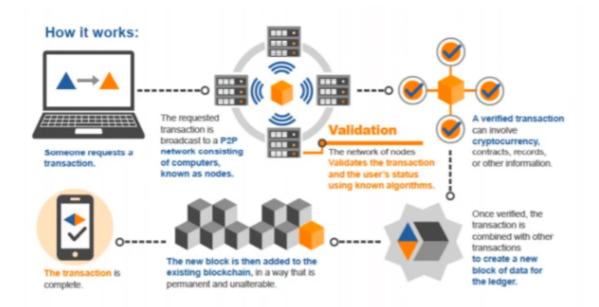
1. P2P

1. 작동 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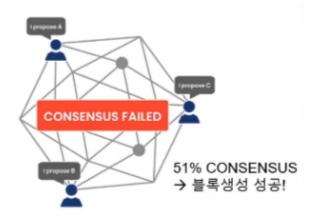




•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P2P 망에서 작동한다.



- 1. P2P 망에 접속하면 node라는 peer 들 끼리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.
- 2. 참여자(node)들은 모두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,
- 3. 누군가 거래를 발생시키면(transaction)
- 4. 참여자들은 이 거래가 valid 한지 서명을 확인한다.
- 5. 이 때 노드들 사이에서 51% 이상의 합의(consensus) 가 이루어지면
- 6. 정식으로 새로운 블록을 추가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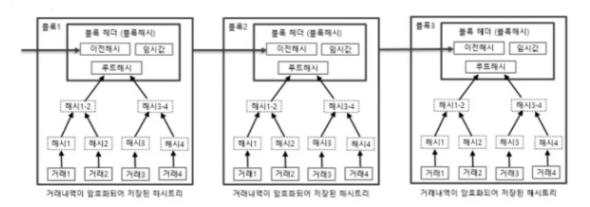


2. 탈중앙화(decentralized)

• 위의 과정처럼, 중앙 서버를 두지 않고서 참여하는 노드끼리 통신하는 구조를 말한다.

3. 특징

• 블록체인은 해킹이 매우 어렵다. 사실상 불가능에 수렴한다고도 이야기 할 수 있다.



- 블록체인은 위의 그림과 같이 거래 내역이 암호화 되어 저장 된 해시 트리들이 각각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.
- 이 때, 예를들어 블록이 100번 까지 있다 했을 때, 80번째 블록의 거래 내역을 조작하고자 한다면 80번째부터 81, 82, ... 100 번째 블록의 내용까지 모두 해킹을 통해 내용을 바꿔야 한다. 이러한 이 유로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다.

4. Applications

활용 분야,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가

1. 결제

- 느려서 요즘엔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.
- 비트코인은 블록으로 만드는데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UX 측면으로 한계가 있다.

2. 데이터 Storage

- 블록체인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위변조가 불가능한 무결성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활용한다.
- 암호화폐, 송금내역, 스마트계약, 문서관리, 의료정보관리, 전자투표와 신원 확인 emd 다양한 활용이 가능 하다. ex) SCM 물류 관리 시스템 (월마트 케이스)

3. World Computing

• P2P 에 참여하는 노드들은 모두 같은 연산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smart contract 를 배포하여 각각이 실행하게 된다면 모두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개념

참고

• 앱 개발 유형은 **Fully Decentralized** v.s **Semi-Decentralized** with Centralized Proxy 에 따라서 도 구분 할 수 있다. (다음 강의 참고!)

5. 요약 정리

- 1. 블록체인은 보안성, 투명성, 무결성, 탈중앙화의 특징을 가진다. 이 특징을 통해 여러가지 어플리케 이션을 만들 수 있다.
- 2. 암호화에는 복호화 가능 암호화, 단방향 암호화로 나눠진다.
 - 1. 단방향 암호화는 검증에 사용되며, SHA256, keccak256 등이 있다.
 - 2. 복호화 가능 암호화에는 대칭키 암호화, 비대칭키 암호화(공개키 암호화) 알고리즘으로 다시 구분 가능하다. 공개키 암호화의 종류는 RSA 와 전자서명,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에는 AES 와 ARIA, SEED 등이 있다.

6. 추가 자료

1. Proof of Work (PoW)

- 합의 알고리증
- 블록체인에서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, 해당 트랜잭션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. 이 때 유효한 트랜잭션인가 합의 하는 방식을 말한다. 보안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.
- 작업증명 단계를 통과해야만 블록이 생성되기 때문에, 작업 증명 과정이 존재하면 P2P 의 모든 노 드가 동시에 블록을 만들 수 없게 된다. 이를 통해 서비스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.
- 작업증명 알고리즘이란?
- PoW 와 PoS 의 정의

2. Hash Function 과 Salt

- 1. hash 함수를 활용한 사례
 - 1. 비밀번호 암호화
 - 1. 회원가입시 비밀번호을 암호화 하여 저장

```
const hash = await bcrypt.hash(password, 12);
await User.create({
   password: hash,
   email,
   nick,
});
const token = signJWT(user);
```

2.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검증

```
const hash = await bcrypt.hash(password, 12);
await User.create({
   password: hash,
   email,
   nick,
});
const token = signJWT(user);
```

2. 토큰을 통한 인증

1. JWT의 구성

```
xxxxx.yyyyy.zzzzz
```

- **Header** (xxxxx)— JWT인 토큰의 유형이나 HMAC SHA256 또는 RSA와 같이 사용되는 해시 알고리즘이 무엇으로 사용했는지 등 정보가 담긴다. Base64Url로 인코딩되어있다.
- **Payload** (yyyyy)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나, meta Data같은 내용이 들어있고, Base64Url로 인코딩되어있다.
- **Signature** (zzzzz)— header에서 지정한 알고리즘과 secret 키, 서명으로 payload와 header를 담는다.
- 2. JWT 를 통한 로그인 여부 및 사용자 검증

```
if (req.cookies['myCookie']) {
   const token = jwt.verify(req.cookies['myCookie'],
process.env.JWT_SECRET);
   const exUser = await User.findByPk(token.id);
```

2. Salt

- 소금을 치듯, 단방향 해시 함수를 보안하기 위한 방법
- 암호화에서 솔트는 데이터, 비밀번호 또는 비밀번호 문구를 해시하는 단방향 함수에 대한 추가 입력으로 사용되는 임의의 데이터.

- Salt 라는 특정 값을 통해서 해시 함수를 통해 나온 결과값을 변형하고, 해커들이 결과값으로부터 원래 암호를 유추할 수 없도록 한다.
- <u>해시(hash)와 암호화(Encryption) 차이점, 사용 용도</u>
- 안전한 패스워드 저장